



광남일보



조간 제 8087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음력 4월 3일)

이재명 “산자를 살린 5월정신...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518인 46주년 5·18 기념식 엄수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참석...여·야 정치권도 총출동
5·18 헌법전문 수록...옛 도청 'K 민주주의 성지'로
“유공자 직권등록제 마련...정부가 희생자 가족 될 것”

관련기사 2·3·9·10·11·18면

오월 영령을 기리는 5·18민주화운동 제 46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 정신에 따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성공’, ‘정부의 5·18 희생자·유족 예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민국인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흑독한 겨울 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

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통한 광주와 전남의 성공적인 통합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빛나는 5·18 정신이 역사의 굵이 굵이마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은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겠다. 오월 광주가 남긴 자유와 평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등, 통합의 힘으로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신설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유공자와 유가족들은 마르지 않는 눈물로 시대의 등불을 밝

혀왔다”며 오월 영령과 유가족들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정래·장동혁·조국 대표 등 여야 지

도부, 5·18 유공자와 유족, 각계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2면으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시, 국내 최초 ‘미래차 인지부품 시험센터’ 건립

광주시가 자율주행차와 도심형공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라이다(LiDAR)·카메라·레이더 등 인지부품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도심형공공교통(UAM) 등에 탑재되는 라이다·카메라·레이더·융합센서 등 인지부품

산업부 공모 선정...총 207억 투입 2030년 완공
자율주행·로봇·UAM 핵심 인지부품 산업 육성

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지부품은 차량과 이동체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눈’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07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시험·검증 장비 9종을 구축해 지역 기업 지원에 나선다.

특히 국제 기능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환경을 마련해 지역 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보다 수월하게 획득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표준 기반 시험 프로세스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핵심 전략사업인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자율주행 핵심 분야인 인지·제어·통신 부품의 인증평가 체계가 통합 운영되면 지역 기업들은 국제 안전 규격에 선제 대응하며 기술 개발부터 인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미래차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사고조사 너무 지연...신속한 조치해야”

이 대통령, 무안공항 참사 현장 방문...유가족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무안 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고 조사를 주문했다.

18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분향소 입구에서 유가족 10여명과 인사를 나눈 뒤 위패와 영정이 놓인 분향소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유해 수습 현장을 둘러본 이 대

통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해가 장기간 방치된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상황도 언급하며, 이관 이후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관 조직 체계 등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조사가 너무 지연됐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Ai시대·5G·3T 국토공간 대전환

균형성장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업과 일자리로 고르게 성장합니다.
지방이 주인공, 대한민국이 더 강해집니다!